바리새적 외식(外飾)의 역(逆)

(마23:1-12)

1.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5.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6.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8.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바리새적 외식(外飾)의 역(逆)>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바리새적 외식(外飾)의 역(逆)'
믿음을 우리가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바리새적 외식의 역이 참 믿음이 됩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 되는 문제는 바로 외식입니다.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골수까지 썩어 들어가는 이유가

외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해부해서 그 내부의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 외식을 거꾸로 행하는 것이 참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적극적으로 외식하는 자들로 몰아세우면서 비난과 저주와 책망을 퍼붓는 그런 장입니다.
그 서두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우리가 한번 그 외식의 내용이 뭔가,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외식이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 되는 구절은 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 다음 구절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런데 말이란 것은 어떤 말들입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율법을 해석하고 생활에 적용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 바리새인이냐 하면 행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입니다.
육백 가지가 넘는 율법조항을 만들어낸 것도 이유가 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율법정신에 맞추어서 율법의 기본의미가 변질되지 않도록 하면서 일상생활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삶이라고 하는 게 십계명, 간단한 열 가지를 가지고 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키라'
도대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어디까지냐,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어디까지냐? 라는 겁니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그 물을 갖고 와서 나귀나 양이나 소에게 먹이면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물에서 길어낸 물을 우물가에 놔두고 양을 끌어다가 먹이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의 눈에는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이런 조항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자 하는 열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이나 빌립보서 3장 같은 데 보면, 사도바울이 자기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얼마나 열심히 유대교 전승에 따라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행함이 있는 자들이에요, 이들처럼 율법조항에 맞추어서 행하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 그러면 주님께서 '행한다, 행하지 않는다' 말씀하실 때의 기준이 우리가 듣는 것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행함이 없는 게 아니고 또,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습니다.
자기들이 말한 대로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말했고, 말한 대로 행동했는데 마음에 그 행동을 하는 의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의도는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알아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얘기를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말한 대로 600가지가 넘는 율법조항을 말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고 그리고 그 말한 대로 행동을 했는데도 '말만 하고 행동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자주 문제 삼지 않아요?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여서 행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행함이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다'는 데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데 입으로 하나님사랑을 이야기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준에서 볼 때 행함이 있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시집온 새댁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처음으로 아기를 기르느라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러다 한 두 해 지나면서 아이 기르는 것이 몸에 익고, 그 일이 기쁨이 됩니다.
아이가 한번 방긋 웃으면 너무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요.
자, 이런 상태에서 입만 열면 아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바로 행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아기를 좋아하고 있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힘에 의해서 그 입이 열리는 겁니다, 입과 마음이 연결된 거예요.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가있게 마련 아닙니까?
언제나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가있어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그리고 입이, 말이 그 마음과 연결이 돼있는 상태, 이걸 행함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걸 좋아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시장에서 사람들에게 문안 받고, 사람들에게 선생이라 칭함 받는 걸 좋아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합니다.
이걸 바로 행함이 없는 것이라고 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가가 입만 열면 돈 얘기를 하는 것, 그건 행함이 있는 거예요.
잘못된 행함이지만 행함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행함 자체는 잘된 행함입니다.
율법대로 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행함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 말하는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전혀 하나님께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에 가있어요.

이걸 바로 외식이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입만 열면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돈 얘기가 나와요? 그건 행함이 있는 거죠, 마음이 돈에 가 있으니까.
한번 아팠던 사람은 건강 얘기만 합니다.
마음이 건강에 가있으니까 건강과 연결된 마음으로부터 입이 열리면 건강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는 게.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외식했습니다.
이 외식이 왜 우리의 믿음의 형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이 외식을 우리도 해야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단지 역(逆)으로, 거꾸로.
그러니까 내가 배우자와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뉴스에 나온 물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이야기 하지만 내 속마음으로는 전혀 물가나 돈 문제에 관심이 없습니다.
물가얘기는 돈 때문에 하는 것이고, 돈 얘기는 돈을 좋아해서 하는 얘기하는 건데 돈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은 전부 하나님께 가있습니다.
마음에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물가가 오르면 오른 대로 사는 거고, 내리면 내린 대로 사는 거고, 내린다고 떼돈 벌 것도 아니고, 오른다고 굶어 죽는 게 아닌데…'
마음은 하나님께 가있는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라도 날마다 하나님얘기만 하기가 곤란해서 그냥 맞장구 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물가 얘기를 하고 돈 얘기를 하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가있고 '하나님께 잘 보이는 게 중요하지 물가가 중요하냐? 문제는 하나님이다.'

자식에게, '이놈아, 공부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공부하라고 하는 말이지만 어떤 아빠는 '하나님께 잘 보여라'를 백번 하다가 아이가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민망해서 할 수 없이 '이놈아, 공부해!'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에는 공부 잘하기를 바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이게 외식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화제 거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직원이 옷 한 벌 새로 입고 오게 되면 '정말 멋있는데요?' 말 한 마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는 전혀 멋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이 살려면 어떻게 하나님 얘기만 하게 되겠어요?

거래처에 가서 하나님얘기를 들이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거래처 직원과 말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이 거래를 알아서 해주시기를 바라는데, 꼭 성사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열심히 설득합니다, 또 그쪽에서 원하는 것을 받아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그러나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겠다는 데에 마음이 다 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거래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 아무리 돈 버는 일이라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거고, 외식하는 거예요.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말해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에게 마음이 가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아이에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외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외식이 뭡니까?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가있을 때 마음은 힘을 받게 돼있고, 그 힘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생각과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좋아질까, 어떡하면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입이 연결이 돼요, 이게 행함이라는 거예요.
사지가 움직이면서 나타나는 행동은, 마음이 좋아하는 것에 가붙어 있고 입만 열면 그 말이 나오고, 생각은 온통 그 생각뿐일 경우에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업으로 삼았어요, 유대사회니까 더군다나 그것이 먹혀들어갔었지요.
그런데 하나님 자신은 전혀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말씀대로 산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입으로 말하는 그 하나님, 너희가 말하는 내용 되시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붙어있지 않은 것을 '행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말 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마음은 하나님께 다 가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마음이 다 가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마음은 하나님께 다 가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살 때는 그 사람들이 갖고 온 화제 거리를 같이 이야기하고 맞장구 쳐줄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과 대화할 때 진실 되지 못하게, 마음은 하나님께 다 가있으면서, 자식과 대화할 때, 미래가 잘되기를 바라고, 인생이 잘되기를 바라는 데에 마음이 가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 하시는 대화의 장이 될 것인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내가 자식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면 좋아하실 것인가?'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을 위한 게 돼버린다면 '자식을 대하는 아빠의 태도가 올바르지 않은 것 아니냐, 가식적이 아니냐?'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요.
당연히 가식적인 것일 수밖에 없죠, 그렇게 보일 수밖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둘 때라야 자식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전달이 되니까, 내가 바로 자식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조권 침해의 위치에서 서있는 자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식에게 두게 되면 나를 통해 흘러가야 될 몫의 하나님의 사랑이 자식에게 막혀버리니까, 우리도 외식하는 거예요.
그 어린 자식이 내가 속마음으로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요, 마치 사람들이 바리새인

들을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믿어' 그 속의 의도를 몰랐던 것처럼, 사람들이 내 속을 몰라요.
사장님은 회사에 마음이 있지만, 나는 회사에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회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는 것이지, 망하면 망하는 대로…
그러니 그 속마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러나 이게 행함이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이 외식이 참 믿음의 모양이라 이겁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역(逆)으로 행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순서가 거꾸로 바뀔까요?
내 마음이 이 시공간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이 생길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죽는 겁니다.
우리는 죄적 본성 때문에 어차피 시공간 바깥에 존재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를 좋아하기가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께 마음이 가기를 소망하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 마음이 갈 때마다,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이 뛸 때마다, 무엇을 갖고 싶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아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는 소망과 깨달음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이 시공간의 세계 안에서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는 죽었어, 나는 죽은 자야!'
그래서 좋아하는 마음을 중단시키고 죽여 버립니다, 멈춰 버립니다.
이러면 성령의 약속을 따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자꾸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어떤 것보다, 들리는 어떤 것보다 더 좋아지고 더 가까이 있고 싶고, 더 갖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바리새인과 극에서 극으로 맞서게 되는 장소에 가서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외식이 뭡니까?
마음이 좋아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말을 하는 것, 이게 외식이에요.
마음과 입이 따로 노는 거죠.
외식은 말한 대로 행동하기까지 합니다.
마음이 좋아하는 다른 것을 위해서 충분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게끔 하게 되는 거예요.

사업가들이 4시간, 5시간 자며 열심히 일할 때, 도대체 옆에서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일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할 때,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유대사회 안에서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이 이 길이라고 생각하면 율법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600가지가 넘는 율법 조항을 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행함이 없다'고 말하신 것이 어떤 뜻이라고요?
'마음과 입이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내가 지금 마음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좋아하는 만큼 다 말할 수는 없어서, 그들의 관심거리에 말을 맞춰주는 외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의 인정이 좋아서 그것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에 관해 말하는 외식을 떠나, 역으로 하나님의 인정이 너무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